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1호 [루게 제23203호] 주체99(2010)년 9월 8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 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돌아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옹성같이 지켜가고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는 혼성창작 《경례를 받으시라》, 녀성독창 《어머니당이여》, 녀성5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대화시 《한집안식솔》, 제담 《근기는 혁명군대의 생명》, 중창이야기 《우리 마을 우리 초소》, 선동시극

《훈련을 싸움보다 더 힘들게》, 손풍금과 노래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시이야기 《그날의 친위병들처럼 살자》, 선동과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내재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사랑의 품속에서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영원히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 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반영한 특색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혁명군대의 예술인답게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으로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밀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예술선전대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군부대의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수천리 외국방문의 길에서 곁잡인 피로도 후실사이없이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여주시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티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과감히 벌려 전투력강화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정보단

## 선군조선의 기상떨치며 미래를 향하여 앞이 밝

### 년간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공화국창건 62돐을 맞으며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 생산기지인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7일 현재 연합기업소에서는 연간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물이 기록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새로 도입한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작장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평평 생산함으로써 연간계획을 석달 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통성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즐기한 투쟁을 벌려 홍남가스화대상설비와 각종 압축기, 탄광과 광산, 발전소대상설비들을 생산하는족족 현저로 떠나보내었다. 당대표자와 당장

통성기계연합기업소 65돐을 앞두고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를 현대적인 기계설비생산기지로 꾸려주시려고 불면분류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통성로동계급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통성의 로동계급은 지난 시기 간고한 시련속에서 대형기계설비를 만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 초 선군혁명령도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통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선군주철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연간계획을 당대표자

로동계급 참모부의 일군들은 로력조작과 원료, 자체보장사업,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틀어쥐고 전투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나갔다. 소재부문에 원료와 부원료들을 알뜰히 보장하며 가공부문에 소재와 공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공무, 동력부문들에서 설비들을 만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설비, 부속품들을 넉넉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선군주철공장과 2주물직장, 단조직장에서 소재생산을 앞세워 가공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선군주철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중추과유도로를 비롯한 현대적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압축기본체를 비롯한 소재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선군주철공장과 2주물직장의 일군들

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홍남가스화1계열대상설비들과 압축기본체를 비롯한 각종 주물용생선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선군압축기작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공정법, 기대별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각종 압축기생선계획을 원천 넘쳐 수행하였다. 1. 기계직장과 4. 기계직장, 프레스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8m타당반과 2.0m대형선반, 7.0m대형 문형형식반과 3.00t 프레스를 원만히 가동시켜 홍남가스화대상설비와 탄광과 광산, 발전소들에서 요구하는 대형설비들을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단조직장과 1. 2. 제판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지주, 장비들을 창안도입하여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해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특약기자 박동석

### 대교조절투쟁의 새 소식 물길굴확장공사 기본적으로 완공

희천발전소건설 미루별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미루별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쳐갈 일년안고 질풍같이 내달려 가는 기본물길공사를 판공하고 개착공사들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만방에 높이 떨칠것입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공사장에 달려온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많은 대상공사를 기한전에 끝낼 큰 목표를 세우고 드센 투쟁전을 벌렸다. 지휘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정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쳐나갔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팀제전을 벌려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지휘부적으로 많은 대상공사를 제일 먼저 끝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작업량이 방대하고 조건이 불리하였지만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공사에 진입한지 불과 7개월만에 작업공급권을 끝내고 편이 석달사이에 기본물길굴의 개착공사를, 낙담안에는 개착공사와 피복공사를 전부 끝내었다. 자강도, 황해북도, 함경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물길굴공사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암질조건이 불리한 속에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개착공사와 피복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승리의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미 물길굴상부피복공사를 끝낸 함경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황해간석지건설사업소,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완성할 예극의 마음을 안고 공병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콘크리트치기와 다짐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평양시, 강원도, 량강도,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물길굴을 완성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개착공사와 피복공사에서 실적을 올리우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 고려약생산에서 혁신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200%로 수행하였다. 하여 이들은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율해계획을 8월 초에 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떨치였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7월에 높이 평가해주신 삼지구엽초강장알약, 익모초부인교감알약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좋은 약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다. 지난 시기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면서도 새 제품들을 개발도입하여 전국의 본보기 단위로서의 영예를 떨치는 평형고려약공장에서는 올해에도 면역계통에 좋은 삼바리활성가루를 비롯하여 9가지의 새 제품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도 평안북도 안주, 윤진, 염주, 황해남도 신천, 태란, 황해북도 상원, 강원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조국을 휘황한 미래에 이끌며 더욱 찬란히 빛나리 본사기자 김중훈 특음







#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핵전쟁의 근본요인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65년이 되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력사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행위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민족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 극악한 범죄의 역사이다.

오늘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시치고 공교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이 세기적인 숙망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조성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압과 매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은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요란히 광고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그에 대치한 《역제력》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지배할 야망에 피뢰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방해하려는 북침전쟁도발정책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반공화국모략사건인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제소송과 발판적인 북침전쟁연습행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는 최악의 국면에 처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침략전쟁정책이다.

일제의 패망후 해방된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한 환희와 열정에 넘쳐 있었다.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아나선 방해군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분 밑에 1945년 9월 8일 수많은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 가로놓인 커다란 장애였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세계 제패전략실현의 교두보로 여기면서 우리 나라에 침략과 간섭의 미수를 뻗쳐

왔다. 남강도적인 미제의 대조선침략행동은 지난 세기 중엽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를 틀어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대조선침략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반반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혈통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들로 갈라지고 동족끼리 대결하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친미분자들을 부추겨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피뢰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반분야에 걸쳐 식민지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피뢰정권의 출현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운명개척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방대한 피뢰군부대를 길러내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전쟁도발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전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얼마나 범죄적이며 침략적인 것인가를 만천하에 고발해주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발발위험의 근원이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무장장비와 병력을 끌어들이고 남조선 곳곳을 침략군기지로 뒤덮었다. 이로 하여 남조선은 극동최대국의 핵화되고, 북침전초기지로 전략전통들이었다.

조선전쟁에서의 참예를 만회하고 미국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부분별한 책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였다.

무장강간첩 《푸에블로》 호사건, 대형강간첩 《EC-121》 사건, 관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수많은 군사적도발행위를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몰아왔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피뢰군과

함께 년례행사처럼 벌어진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그리고 대규모적인 무력증강행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은 그 무슨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남조선과의 군사적결탁을 진밀히 하면서 북침전쟁도발수동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미군부세력은 《전략적유연성》을 떠들면서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존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험적인 선제공격타격을 로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제침략군부대의 한강이남지점대로의 재배치와 해, 공군부대의 증강, 남조선에 대한 미행정부의 《확장적억제》 공작은 그에 대한 횡사이다.

미국은 반공화국모략사건인 《천안》 호사건을 구실로 남조선강점 미군부대를 물론 본토와 기타 해외주둔 미군까지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피뢰들과 함께 북침전쟁연습수동을 발판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얼마전 조선동해에서 벌어진 전례없는 규모의 남조선미군함대상륙훈련과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미국의 방대한 전략무력과 최신전쟁수단들이 동원된 속예 벌어진 이 전쟁연습들이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에 대적》 하기 위한 《방어연습》으로 광고되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예비전쟁, 시험전쟁들이었다.

남조선에 계속 타고앉은 대조선침략정책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이제라도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 미국이 수만명에 달하는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함이다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조선반도에는 대화와 긴장완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부분별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하여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떠돌고 있다. 사실들은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이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와 핵전쟁위험의 근원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철수는 전체 조선민족과 6. 15 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맹정이 종식된지도 오랜 오늘까지도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반미반전투쟁들과 미군철수운동은 남조선인민들이 결코 미군을 《보호자》로, 《억제력》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하루빨리 몰아내야 할 제왕의 화근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민족이 배격하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더구나 북과 남은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을 통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은 세계앞에 확약하였다. 미제침략군이 더이상 남조선에 주둔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그 누구의 《위협》이나, 《도발》이나 하는 것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기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발발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오히려 조선반도나 또다시 전쟁의 불길속에 빠져드는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6. 15 통일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외세를 몰아내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 해내의 온 겨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민족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반미자주화투쟁,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북은 회

## 공화국의 인민이 영원한 행복의 역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활짝 꽃피워가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오고 있다. 어느 한 시국토론회에 참가한 평양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이북의 사회현실에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부름!》이라는 구호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이북에서 사회의 모든 시책과 혜택은 민중위주이다. 교육과 보건, 과학과 문학에도 민중에 대한 배움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비롯한 민중들이 국가정사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북이 아마도 정말 민중의 세상이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찾고 싶어 법학을 배웠고 또 그에 대한 연구에 열정을 바쳐왔다는 한 법학 교수는 인간의 존엄이 외세의 군화법에 무감하게 갖는다는 남조선사회현실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제사주의를 이렇게 말하였다.

《동서고금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이북과 같은 사회제도는 없다. 이북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어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이고 문화와 휴식, 무상치료 등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고 있다.》

이북과 같이 인민들의 권리와 존엄이 담보된 사회제도에서 살아보았는지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평양을 다녀왔던 적이 있는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우리 공화국의 사회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는 동료들에게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리 이남과는 달리 이북은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협력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인간사회의 참사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이아말로 민중에 영원한 복을 주는 사랑의 화현, 그 없이 해방민이 차넘치는 행복의 낙원이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동료들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놓아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북이 아마도 정말 민중의 세상이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세워진 사회제도도 각기 하지만 민중의 자주적인 삶과 존엄을 함양해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사회는 오직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밖에 없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이 뿌리가 되고 맥박이 된 주체의 사회주의이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여 동료들의 품으로 안기자고 그들을 하루빨리 앞당겨주기 위해 조국통일정전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의 품은 우리가 안겨갈 태양의 품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어버이품으로 우리 모두 손잡고 가자!》, 《이북모두 품어주라. 김정일영도자님의 품으로!》...

영원한 삶의 품, 행복의 보금자리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 공화국의 품으로 달리는 남녘의 민심은 이처럼 열렬하다.

본사기자

## 간도대진 재조선인 희생자 추도모임 진행

간도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모임은 간도대진재 희생자 추도모임이 있는 때로부터 87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희생된 동포들을 추도하는 모임이 1일 도교에 있는 제일 조선인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박우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가장 겸 전리부처지원외위원장, 황명 총련 도교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희생된 동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모임에서는 황명위원장이 추도사를 하였다.

그는 1923년 9월 1일 간도피방을 휩쓴 대지진으로 하여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만 이 극도에 이르자 일본당국이 공적의 화살을 제일조선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무서운 음모를 꾸미었다고 규탄하였다.

제일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야수적탄압은 잔인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간도대진재가 있는 때로부터 87년이 지나고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온전케 진상조차 특특히 밝히지 않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일본수상이 8월에 한 담화는 죄악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 우리 민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일본당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통치의 죄과를 진정으로 반성하며 간도대진재의 조선인희생자는 물론 강제연행과 일본군위안부행위 등 과거 모든 죄의 책임을 진상하고 사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총련과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 인권침해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조일평화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일관계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해

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우리민족들의 반조선인수동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하면서 모든 동포들이 단결된 힘으로 우리 조국, 우리 생활, 우리 후대를 온건히 지켜나 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일조우호추진 도교의원 연락회 대표가 발언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조선에 대한 악의에 찬 선전이 만무하다는 엄중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정부가 조선에 대한 제재책동에 매달리며 이진도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가로막고 제일조선학생들에게까지 차별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가시도에서는 조경 도교도 가조지에서는 추부부장 한승민, 도교조선중고급학교 학생 김화영이 토론하였다. 이날 지방, 사이타마현의 여러곳에서 추도모임들이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파거 군부 독재의 재현

그에 대해 보기도 하자. 《사람을 죽이는 《정권》》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등장한 《정권》이다. 그리고 그들을 《독재분자의 조공을 받고 있는 폭도》로 몰아냈다.

리명박 《정권》은 출현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생존권을 요구하는 통상실업자들에게 대한 강경진압으로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폭력시위를 일삼는 전문시위군》들이라고 모독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이 낚이는 이러한 속에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사는 《리명박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님은 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사자의 민주화를 말하고 반일대결정책만을 추구하는 현실 보수정권세력을 전두환독재 《정권》에 비유한 이 글은 남조선 각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과정에 박종철철사

## 반통일적인 탄압행위 비난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중시보》 1일부가 《통일인사를 석방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남조선피뢰대장이 6. 15 공동선언을 이행한 대한 통일운동에 나선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리명박 《정권》이 7월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진보반대 공동대표 한총목을 탄압한데 이어 8월 이 단재 상임고문 한상열목사를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구속한데 대해 글을 밝혔다.

그는 목사가 6. 15 공동선언 리행을 위해 북을 찾아가 동족과 만난 것이 어떻게 죄가 될수

##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계속 늘어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2009년 한해동안 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전체에 비해 6. 2%가 증가하였다. 범죄행위에는 미군병사들은 물론 장교들도 가담하였으며 폭

력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걸려든 자들도 130명에 달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리명박역적파당의 친미사대매국정책을 등지고 더욱 오만하게 돌이켜 남조선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고 있다.

본사기자

##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 규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명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3일 미국과 피뢰조선당들의 북침전쟁연습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미국과 리명박사대 미국 《정권》이 아합하여 조선동해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는데 이어 또다시 조선에서 북침을 노린 연합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데 대해 비난하였다.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 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8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남조선전역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함에 대하여 분노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또 한차례의 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가중되고 조선은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계속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

##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명 발표

은 겨레와 세계인류의 평화회복에 역행하는 미국과 피뢰조선당들의 위협적인 전쟁연습행동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합선침몰사건 조사결과가 온통 거짓으로 차질이라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도 8월 31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던 러시아

의 조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리명박에게 정치적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미국과 리명박 사대를 극단으로 몰아가며 모험적인 군사적연습을 계속 매달린다면 더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온 겨레가 굳게 뭉쳐 미국과 사대매국들의 전쟁행동을 반대하고 반미, 반독재투쟁의 불길

을 세계적 지퍼올리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철회를 요구

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실적인 세력이 그 무슨 《기다리는 전략》이나, 《원칙고수》니 하면서 한사코 추후에는 대결정책이 너무도 참혹한 후과를 몰아온다고 판단된다. 현 북남관계는 6. 15 통일시대의 정상회담에 옮겨서야만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의 반민중적행위와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는 아예 귀를 틀어막고 여전히 대결정책고수예 열을 올리고 있다. 피뢰들은 외세와 함께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수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으며 불순한 《통일선》 제언의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제정당》야당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 리명박이 얼마전에 있는 개각에서 천인배, 류명환, 김태영 등과 같은 북남대결의 면 앞장서서 반민중들을 모두 류인시킨것은 역도가 이자들에 의거하여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계속 강행하려 한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의 반민중적인 대결정책은 온 겨레의 저항과 요구,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배극반역행위이다.

지난 65년동안 외세에 의하여 분열을 강요당해온 우리 민족

## 뉴질랜드단체 성명

성명서 발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전쟁도발책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행위이다.

협회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도발책동을 거부시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본사기자

## 파멸을 재촉하는 대결정책

3000》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비핵, 개방, 3000》을 구실로 무장대결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우리를 어찌보려는 극히 반민중적인 제재제출, 북침전쟁행동은 더욱 확대하여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우리와 떨어져 대결화자는 것이라야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의 계몽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파당이 대결정책의 유지로 그 무엇을 얻을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대결정책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파멸의 운명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강행은 스스로 자멸의 합정을 파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남조선 현 집권세력은 지난 2년반동안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북남관계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6. 15의 귀중한 성과물들을 모두 저지 말아먹은 죄악만으로도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 각계가 보수파당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우리 민족은 화합이나 대결이나,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생사기초에 놓여있다.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포기

## 에짜도르인사 글 발표

세계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군사적행동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감행하고 있는 전쟁연습들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대결정책

다만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벗어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보다 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선》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놀음에 매달리고 있는것은 《통일》의 간판을 빌려서라도 거덜이 날대로 난 대결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용례를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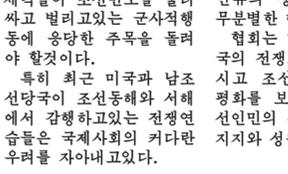
이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현 《정권》 출현이후 추진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으로 북남관계와 협력, 교류가 단절되고 군사적긴장이 고조되어 결국 남조선은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북남관계에 관한 시기는 당국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는 보수파당의 책동이 사상상 그들의 파멸을 앞당길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아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일민도정책을 계속 실시한다면 제가 판국에의 무덤에 처박히는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민심의 요구를 한사코 무시하고 대결정책만을 계속 고집하는 백해무익한 민족반역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

## 침략《동맹》의 폐기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침략《동맹》의 폐기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활짝 꽃피워가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오고 있다. 어느 한 시국토론회에 참가한 평양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이북의 사회현실에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부름!》이라는 구호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활짝 꽃피워가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오고 있다. 어느 한 시국토론회에 참가한 평양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이북의 사회현실에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부름!》이라는 구호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활짝 꽃피워가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오고 있다. 어느 한 시국토론회에 참가한 평양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이북의 사회현실에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부름!》이라는 구호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